

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

유 안 진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)

이 점 속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)

서 주 현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)

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(정문자·송성자, 2001) 선행연구는 비행의 하위 영역이나 한부모 가족 내의 이혼, 사별, 별거 등의 가족구조에 따른 구분 없이 행해졌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가족과 이혼, 사별, 별거 가족의 청소년들이 비행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행의 하위영역을 나누어 고찰하고, 가족의 소득수준, 이혼 후 경과기간, 양육부모의 성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.

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6개교, 고등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총 4229명을 표집하여 이 중 한부모 가정 청소년 247명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 305명을 포함한 총 552명으로 하였다. 예비 조사를 거쳐 본조사는 연구자가 해당 중·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응답 방식 등을 설명한 후 교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실시되었다.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0.0 프로그램의 t검증, 일원변량분석(ANOVA), Scheffe'검증, 다원량분산분석(MANOVA)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행수준이 다르다. 특히 비행의 각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 비행의 하위영역을 구분한 본 연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. 폭력 및 일반지위비행은 연령차가 나타나,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비행수준을 보였고, 그 외에 사회질서비행, 성비행,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비행수준을 나타냈다.

둘째,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다르다. 특히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비행 수준보다 더 낮았다.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비행이 일반 가족의 청소년 비행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(김영희·김운주·박경옥·이희숙·김창기, 2000)의 결과를 지지한다. 이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가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훈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.

셋째, 이혼집단 청소년의 비행은 이혼 후 경과기간 및 비행의 하위영역별로 다르다. 청소년의 비행은 부모의 이혼 직후보다는 1-2년 사이에 더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청소년의 비행이 훈육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. 또한 비행의 하위영역별로 성적 비행과 재산비행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어 한쪽 부모의 부재가 청소년의 성역할 발달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(정영숙·김영희·박경옥·이희숙·채정현·이종섭, 1999)를 지지하였다.

넷째,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에는 차이가 없었다.